

올해 도립예술단체 설립 원년 삼을 것

경남예총, 경남예술원 설립·아트마켓 추진 등 계획 밝혀

입력시간 : 2009. 01.18. 19:00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경남예술제 가을시즌 '논개' 공연모습.

올해 문화예술계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침체로 문화예술계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 예술인들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종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남도지회(이하 경남예총) 회장은 “예술인들은 경제위기를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한다. 원래 어려웠기 때문이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예총은 올해 몇가지 주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이르면 6월께 설립될 경남문화재단을 위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경남예총이 경남예술인을 대표하는 만큼 재단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방침이다.

각 분야 원로들을 추대해 경남예술원을 설립한다.

이종일 회장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한 우물만 파온 원로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9개 협회에서 3명 정도씩 추천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또 경남예총 산하 문화예술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하는 예총’으로 거듭난다. 문화시대를 맞이해서 연구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다.

올해는 해외교류전도 계획돼 있다. 파리문화원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 경남의 훌륭한 예술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공연, 전시물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아트마켓을 올 10월께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1회성 행사에 그치는 전시, 공연들을 한자리에 모아 수요자들과 거래를 형성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트마켓 등을 통해 도내에서 기획된 공연, 전시가 타시도에도 소개되고 결국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경남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도립예술단체 설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를 예술단체 도립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이 회장은 “도립예술단체 설립에는 단체장의 의지 뿐만 아니라 예술인, 도민들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산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올해 추진위를 구성, 상반기부터 활동해 내년 상반기쯤에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경남예술제가 올해도 이어진다.

봄시즌은 원래 시군을 돌아가며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선보이던 한마음축제를 경남예술제 봄시즌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한다. 올해는 함안에서 열린다.

가을시즌은 지난해 공연파트의 총체극 '논개'에 이어 올해는 문학, 전시파트가 꾸며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남예술극단 정기공연 '돈키호테', 향토사랑 순회서예전 등으로 도민들을 찾아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방소희 기자>

<방소희 기자> shbang@kndaily.com <방소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경남매일**(<http://www.kn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kndaily.com